

19. 샬롯은 어떠했나? What about Charlotte?

“도로시는?”이라는 질문으로 이 책을 시작했다. 그럼 이제는 “샬롯은 어떠했나?” 라는 질문으로 끝맺도록 하자. 도로시는 윌리엄 케리의 첫 번째 부인이었고, 샬롯은 두 번째 부인이었다. 두 여인은 매우 달랐고, 그 당시에 윌리엄과 도로시를 파송했던 선교단체도 변해 있었다.



1800년 11월 27일, 도로시가 죽기 7년 전에 윌리엄이 친구에게 편지 쓰기를, “나는 어제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온 독일 숙녀분에게 영어 가르치는 일을 했네. 그녀는...고통스러운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었어.. 몇 년 동안 말도 못하고, 잘 서지도 못하는 건강 상태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이제는 말도 회복되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네. 그녀 이름은 루모르(Rumohr)인데, 나는 그녀가 이 곳에서 영혼에 유익한 것을 만났다고 믿네.”

윌리엄은 샬롯 루모르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개인 교사로서 그녀의 목사가 되었다. 기독교의 교파에 대해 지식이 없던 인도 총독이, 윌리엄과 덴마크 공작 부인의 결혼에 대해, “그가 기독교에서 침례교로 부인을 개종 시키면서 침례의식 중에 그녀를 거의 익사시킬 뻔 했다”고 썼다.

1808년 1월 20일, (38일 전) 도로시가 죽은 후에 윌리엄이 그의 여동생에게 편지를 썼다. “적당한 시간이 흐르면 재혼할 것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남사스럽다는 것을 안다마는, 내가 몇 달 후에 루모르양과 재혼할 생각이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구나.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그녀가 동의 했단다. 그녀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독실하고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녀의 소원대로 내 의사를 너에게 빨리 알린다.”

윌리엄이 재혼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처음에는 인도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도로시가 정신 질환을 앓았던 12년 동안 윌리엄과 도로시 사이에 감정적인 유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 반대는 곧 없어지고, 결혼이 허락되었다. 윌리엄과 샬롯은 1808년 5월 8일에 결혼했다. 이 결혼은 도로시와의 결혼과는 상당히 달랐다.

샬롯은 달랐다

도로시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지만, 샬롯은 그녀의 건강을 회복시켜 줄 무엇인가를 찾아서 스스로 인도에 왔다. 재정적으로 그녀는 부유 했고, 유럽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인도에 남기로 결정했다. 사실 그녀는 결혼 후 바로 그녀 집을 선교 단체에 빌려 주었고, 그 세를 인도에 있는 목사들을 후원하는데 사용했다.

도로시는 글을 읽을 수가 없었으나, 샬롯은 폭넓게 읽을 수 있었다. 인도에 오기 전에 덴마크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배웠기에 책을 원어로 읽을 수 있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인도에 있는 동안 다른 선교사들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영어도 배웠다. 또 현지인들을 잘 섬기기 위해 벵갈어도 배웠다.

도로시는 글을 쓸 수 없었지만, 샬롯은 윌리엄에게 정중하게 연애 편지를 썼다.

- 당신의 자상한 편지에 큰 애정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여행이 내게 유익 하였지만, 당신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 속에서는 당신과 함께랍니다.
- 당신과 헤어져 있어서 매우 슬프습니다. 나는 솔직히 당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이 당신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 내 사랑, 당신을 다시 볼 생각을 하니 정말 기뻐요. 내가 당신을 잘 찾을 수 있게 건강 조심 하세요. 당신이 밤낮으로 얼마나 내 마음 안에 있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도로시는 정신병에 걸려 윌리엄의 사역을 반대했다. 그러나 샬롯은 그의 사역에 동참했다. 그녀는 현지인의 ‘어머니’가 되기 원했고, 힌두교 여인들을 가르치는 데에 유독 관심을 가졌다. 샬롯과 윌리엄은 많은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서 불과 몇 년 만에 사랑하는 관계를 쌓았고, 윌리엄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812년 3월 11일 편지에는 즉 재혼 후 4년이 채 안 되었을 때 그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매우 다정하고 신앙심 깊은 아내가 있다. 그녀는 교육과 폭넓은 독서로 상당히 교양 있다.” 이 얼마나 많은 점들에서 도로시와 다른가!

윌리엄이 변했다

샬롯이 죽은 이후에 윌리엄이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하나됨을 즐겼고” 서로에게 조금도 감추는 것이 없었다고 썼다. “기도하고 같이 대화하고...조금도 주저함 없이...서로에게 지속적으로 기쁨이 되는 부부애를 즐겼다.”

1814년 1월 24일, 야벳이 결혼한 직후에 윌리엄은 부자간에 쓴 편지에서 “넌 이제 결혼했다. 네 아내에게 예의를 갖춰 대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너의 행동에서 사랑이 솟아나도록 해라. 아내를 최대한 존중해서 그녀 또한 너를 존중하게 해라. 외모나 아름다움에서 오는 첫 사랑의 인상들은 닳아 없어지나, 인격에서 나오는 믿음은 지속되고 점점 커진단다”라고 썼다.

1821년 5월 30일에 샬롯이 사망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윌리엄은 이것은 “한 사람이 감당해 내야 하는 한 집안에 가장 큰 상실이었다.” 1822년 2월 16일, 몇 달 후에 여동생에게 쓰기를 “나는 참 외롭고, 자주 불행함을 느낀다. 내 집은 황량해 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큰 슬픔이다.” 이것이 도로시가 죽을 때에 여동생에게 썼던 글과 얼마나 다른가 보라 - 그때는 “내가 곧 샬롯과 결혼할 것이다”라고 썼다.

선교 단체도 변했다

도로시가 (강압에 의해) 마침내 윌리엄과 함께 인도로 가겠다고 했을 때 안도 했던 선교단체 대표 앤드류가 몇 년 후에 매우 다른 내용의 편지를 썼다. 리드 씨 가족을 평가하고 리드 씨는 허락할 만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선교 사역에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지은 후 앤드류는 1797년 9월 7일에 윌리엄에게 쓴 편지에서 “그의 아내와 딸이 원하지 않았고...그의 아내가 원하지를 앎고... 그리고 그녀가 이전에 불행한 상태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장애 요소이다”라고 썼다. 이 점 또한 윌리엄과 도로시가 선교를 가려 했을 때와는 얼마나 다른 반응인가!

1799년 5월 1일, 한 목사에게 쓴 편지에서, 앤드류는 브룬슨 씨가 “그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아이언 양과 결혼했다”고 썼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두 명의 선교사 후보의 아내들이 같이 가기를 원하는지, 아닌지에 확신이 없다고 썼다. 한 가족의 선교 사역을 허락할 지를 결정할 때 배우자가 함께 갈 의사가 있는지가 결정적인 점이 되었다. 명백히 도로시의 희생은 약 두 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선교 정책에 있어 변화들을 가져왔는데, 이는 그녀와 같은 고통들을 미리 방지하는 변화들이었다.

오늘날 선교사의 결혼은 어떠한가?

케리의 시대처럼, 다른 문화에 산다는 것은 결혼 이외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 때와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의 영향은 남편, 아내, 선교 단체에 의해 결정된다.

위의 앤드류의 언급처럼, 심지어 도로시가 죽기 전에 침례교 선교회는 결혼과 가족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선교사를 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세기가 바뀔 때에 웨슬리안 선교회는 여러 해에 걸친 변화를 보여주는 선교 정책집을 만들기 시작했다.

- 1818년에 선교 후보자들은 그들의 아내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문을 받지 않았다.
- 1822년에 후보자들은 그들이 결혼할 지 아니면 독신인 지 또는 그들의 아내가 몇 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추천될만 한 지 아닌지 그리고 또 그녀의 부모가 승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 받았다.
- 선교사들이 ‘적당한’ 아내들을 찾아 영국에 돌아왔을 경우, 신부를 데리고 사역지로 돌아가는데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오늘날 선교 단체들은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 열정적인 후보자들은 때로 자기들의 결혼 생활이 건강하다는 ‘확신’으로 본인들의 경우는 제외 시키길 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문화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200년 전의 경우처럼, 오늘날에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예외로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다른 문화에서 사역하기 위한 예비책을 갖고 있을 지라도, 특히 남편과 아내는 먼저 많은 공통점이 있어야 하고 열린 소통이 있어야 하며 또 둘 다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도로시와 샬롯에 대한 추가 읽기 자료

1992년 제임스 벡(James Beck)이 그의 책을 출판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도로시가 정신 병자였던 것 외에는 잘 알지 못했다. 아래 참고에 나와 있듯이 부제목이 이점을 잘 보여 준다. 그의 책은 여전히 그녀의 삶에 관한 주요 자료이다.

제임스 벡 (1992) 도로시 케리: 윌리엄 케리 아내의 비극과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그랜드 래피드 출판,미시건:베이커

Beck, J. R. (1992). Dorothy Carey: The Tragic and Untold Story of Mrs. William Carey. Grand Rapids, MI: Baker.

비록 살롯의 삶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정보가 백의 책에 나와 있다. 다른 자세한 것들은 조지 스미스(George Smith)가 1909년에 쓴 윌리엄 케리 전기에 나와 있고,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있다. 가장 잘 나와있는 곳은 8장 ‘가족과 친구들’이다.

<http://www.biblebelievers.com/carey/index.html>

http://www.ccel.org/ccel/smith_geo/carey/files/carey.html

<http://www.wmcarey.edu/carey/gsmith/smith.htm>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